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



제33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왼쪽 다섯 번째)과 이사들이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제33회 아산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 자리한 아산홀에서 열렸다. 아산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아산상 대상은 캄보디아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15년간 현지 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해 온 김우정 헤브론의료원 의료원장이 수상했다. 의료봉사상은 20여년 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노숙인들의 질병 치료에 힘쓰고, 주거와 재활 지원을 통해 노숙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최영아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의사가 받았으며, 사회봉사상은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년간 콩 재배와 가공산업 육성에 기여한 권순영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NEI, Nutrition & Education International)' 대표에게 돌아갔다.

복지실천상과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복지실천상은 양춘자 대구SOS어린이마을 생활지도원, 조미숙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황태

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부장, 정혜숙 동성원 선임복지사, 장현봉 고성정신요양원 생활재활과장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자원봉사상은 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김문규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본부장, 박정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이요셉 문화예술아카데미 대표,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키니스장난감(비영리민간단체)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효행과 가족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가정의 의미를 일깨워준 효행·가족상 수상자로는 김미애 씨, 이명옥 씨, 임정숙 씨, 송경준 씨, 황일용 씨가 선정됐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산상 수상자들이 여유가 있어서 남들을 도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아산상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아산재단 이사 및 감사, 수상자와 동반인 1명만 초청하여 진행됐다.  글 편집부